

전통의 예술 꿈나무 제전 호남예술제 53돌



예술꿈나무들의 경연장인 제53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25일부터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회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광주 계수초등학교 발레 군무 팀.

52만명 거쳐가... 예술제 중추로 6개 분야 1만여명 한달간 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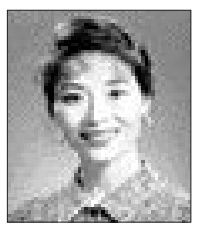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큰 역할을 해온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53회를 맞았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전남일보사가 지난 1956년 처음 행사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참여인원은 52만여명에 이르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해냈다. 오는 4월 25일부터 열리는 제53회 호남예술제 일정과 호남예술제가 낳은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음악 부문 강세... 최근 젊은 연주자 두각 25일부터 개막... 대상 국회의장상 수여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인물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분야는 음악 부문이다. 경쟁률이 치열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성악의 경우 호남예술제 '수상'은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우려는 이들에게 큰 좌표 역할을 했다. 호남예술제는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다. 김남윤(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숙(경희대), 김연고(호남신학대), 서영화·김혜경(조선대), 김예림(목포대), 강숙자·정애연(전남대), 박미애(광주대), 조수현(광신대) 등이 호남예술제를 거쳐갔다. 최근에는 20대 연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95년 최고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임호열(22)씨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제 21회 에피날국제콩쿠르에서 1등상과 프랑스음악상을 동시 수상했고,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 수준높은 솜씨를 선보였다.

벨리우스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21)씨 역시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또 초·중·고 최고상을 휩쓴 바이올리니스트 양재미(33)씨는 미국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현재 전남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해 귀국해 독창회를 가졌던 성악가 정용선씨는 도르트문트시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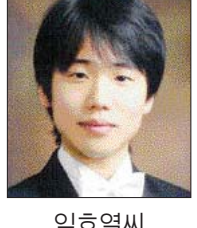
무용 분야 역시 면면이 정쟁하다. 지역 무용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대 무용과의 경우 임지형·박준희·김미숙 교수를 비롯해 전현직 무용합창단장 정혜신·정혜경씨, 전현직 광주시립무용단장인 박경숙·이영애씨 등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초·중·고 재학 당시 최고상을 수상한 후 미국과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선희씨는 호남예술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서차영(세종대), 김화숙(원광대), 김화래(경희대), 신정희(경성대)씨 등도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밖에 미술의 강연균·최광중·배동신·최



김선희씨



김남윤씨



임호열씨

영훈, 문화의 양성우·고재종·곽재구, 국악의 박종선·신영숙·문명자씨 등도 눈에 띈다. <1만명 한달간 경연> 올해 행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무용 경연을 시작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호남신학대학교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열린다. 경연은 음악(성악·피아노·바이올린·기타·현악·관악), 무용(현대무용·발레·한국창작·한국전통), 국악(기타·성악·가야금·타악), 작문(시·산문), 미술, 논문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미술과 작문·논문은 오는 5월 1일~9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합주·합창제도 눈길을 끈다. 관악, 현악, 관현악 합주와 함께 고등학교 그룹사운드들이 열린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1천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유치부 대상의 '새싹 그리기 축제' 입상작들은 전시회도 갖는다. 전체 대상에게는 지난 대회 때 신설된 국회의장상이 수여되며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부문별 최고상 등이 수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공연·음식 어우러진 '문화 한마당'

예감회, 17~30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서 '화전 놀이전'

우리 조상은 봄이든 진달래꽃을 뜯어 썰가루에 반죽해 봄꽃만남이나 예쁜 화전을 지졌다. 이웃들을 불러 모아 꽃노래도 불렀다. 광주지역 화가, 시인, 국악가, 전통음식 전문가와 관람객들이 한바탕 어우러져 올 봄 화전 놀이를 떠난다.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 문화인들의 모임인 '예감회'(회장 김용남)는 17~30일까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화전 놀이전'을 연다. '화전 놀이전'은 그림, 시, 음악, 요리를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맛볼 수 있는 종합 예술 무대이다. 노의용, 최규철, 송필용, 한희원, 김성식, 이이남, 김주리씨 등 10여 명의 화가들이 작품을 내었다. 노의용씨는 원시적 자연을 그려낸 '구름천사'를 선보이고, 이이남씨는 조선시대 화가 정선(1676~1759)이 비가 온 뒤의 인왕산의 풍경을 그린 인왕재색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신인왕재색도'를 전시한다. 또 광주시청 공무원이기도 한 시인 오승준씨는 전시장에서 시 낭송회를 열고, 명창 이지선(광주시립국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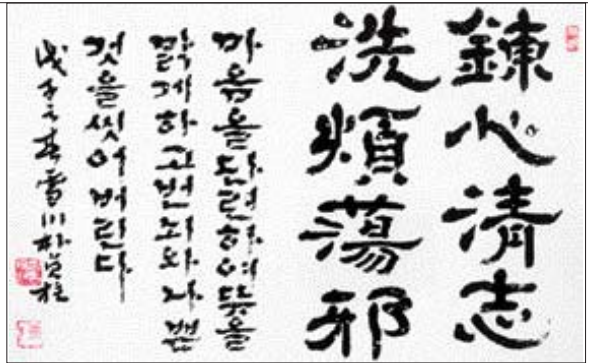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화전놀이'전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씨는 구성진 판소리로 흥을 돋운다. 전통음식과 차 전문 카페인 '다담'의 강덕순 대표는 구례 지리산 자락에서 따온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친다. 화전은 관람객이면 누구나 맛볼 수 있다. 개막일인 17일에는 관람객이 작가와 대화를 통해 예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예감회' 회원과의 만남의 시간(오후 4시~밤 12시)도 갖는다. 지난 2004년 창립한 '예감회'는 화가, 문인을 비롯해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예술을 통한 사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달한 차례적 신애원, 광주희망원 등지의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벽화를 그려주고, 아이들과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는 문화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남 회장은 "화전을 나눠 먹듯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과 함께 예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는 흥겨운 문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575-8883. /오광록기자 kroh@

남도서예원로작가회 창립전 2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30여 년 넘게 글씨를 다듬어 온 광주·전남지역 원로 서예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이 지역 서예 작가들의 모임인 남도서예원로작가회(회장 박정주)는 오는 2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학정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를 선보이고 있는 이돈홍씨를 비롯해 이창연(초서), 유봉자(행서), 김용석(한글)씨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60~70대 작가들의 농



박정주 작

익은 글씨체가 화선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의 062-380-886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 창립 공연 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회장 김광복 전남대교수) 창립 기념 초청 공연이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950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몽골 칭기스 국립민속관현악단(지휘 보인바트라·사진)과 박양희(나무)씨가 이끄는 인도 집시 예술단 바울이 공연을 갖을 예정이다. 또 몽골의 전통 악기인 마두금과 아트카 협연무대가 마련돼 있으며 가 야금 연주자 하선영씨와 가수 정용주씨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는 현재 몽골, 카자흐스탄 등 10여개국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0여개국으로 회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2012년에 맞춰 아시아민족음악축제도 준비중이다. 문의 062-385-0815. /김미은기자 mekim@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and movie posters. It includes sections for Mega 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Hami Cinema, and Mu-dung극장, each with a list of movies and showtimes.